教育強道 실현을 위한 인재양성전략

김 진 덕
충북개발연구원 연구위원

1. 시작하며

산업화 과정의 새로운 전환기로서 21세기는 모든 분야의 지식이 창출, 확산, 배분, 활용되는 시스템이 증시되는 지식기반사회가 빠르게 진전되어 가고 있다. 최근에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혁신적 지식과 기술 중심의 창조적지식사회가 도래하고 있고, 이러한 창조적 지식사회의 도래는 교육패러다임을 혁신적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된다. 또한 세병화(glocalization)의 가속화로 국가간 경쟁체제에서 지역간 경쟁체제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어 지역단위에서의 우수한 인적자원 확보는 경쟁력의 중요한 기반이 된다. 즉 해당지역이 얼마나 많은 우수한 인적자원을 확보하고 있는지가 주요한 경쟁요소가 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주요 선진국은 인적자원개발체제를 혁신하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으며, 인적자원개발 전략을 수립하여 국가적 차원의 정책자원을 강화하고 있다.


충북의 경우 행정중심복합도시 배후지역으로서의 발전 가능성 중대, 혁신·기업도시 등 혁신기반 확대, IT·BT 등 성장동력 창출산업 중심지로의 도약, 중부권 교통 중심지 부상 등 지역발전의 확기적 전기를 맞고 있다. 특히, 민선4기 출범과 함께 시작된 경제특별도 건설 추진에 따라 기업유치가 활성화 되고 있어 도내 기업들의 인력수요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교육환경 개선과 지역의 인재양성에 대한 도민들의 정책수요도 점차 증가되고 있어 도 차원의 정책적 대응이 요구되는 시점에 부각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내에서는 인구 증가의 정체, 노령화 현상 심화, 경제활동참가율 저조, 청년실업 고착, 고급인력의 역외유출 심화, 구직난과 구인난이 공존하는 인력수급 불균형 등의 어려움과 함께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교육복지정책 미흡 등 해결해야 할 구조적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인재양성기반의 구조적 문제들을 해결하고 경제특별도 건설에 따른 유치기업들의 조기정착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경쟁력을 담보할 수 있는 우수한 인재의 양성·활용이 관건이 될 것이다. 이러한 장기적 필요성에 따라 충북도에서는 도청, 교육청, 대학, 산업체 등 유관기관들과의 유기적 협력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충북을 인재로봇이 강한 지역으로 만들고자 하는 정책적 의지를 담아 충북인재양성전략을 마련하게 되었다.

충북인재양성전략은 대내외 여건변화 및 정책방향 도출, 비전 및 추진전략, 정규교육, 직업훈련, 평생 학습영역 등이 상호 연계되는 혼신적 인재양성을 위한 중점 추진과제, 사업 추진을 위한 유관기관들의 역할 분담과 상호 협력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컨버넌스 체계 구축, 관련 제도 개선방안 등 지역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전략적 로드맵을 담고 있다.

따라서 충북지역의 인재를 양성, 배출, 활용 및 관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 정책방향

자원기반 산업경제에서 지식기반경제로 전환되고 있는 시점에서 인적자원을 어떻게 개발·활용할 것인가의 문제는 지역발전의 원동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특히 지역적 차원에서는 인적자원개발의 양적·정적 측면에서의 본반적 성장을 유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사안이 된다.

인재양성의 기초적 기반이 되는 학교교육의 경우 교육시설 협소 및 노후화 등 교육환경 개선, 여전히 미흡한 글로벌 인재 양성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교육계의 다각적인 노력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확대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점차 확대되고 있는 소외계층의 교육복지수준을 높이지 못한 지역사회에 있는 소외계층의 교육복지 증진을 위한 노력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이다.

경제특별도 건설이라는 목표의 조기달성은 기업유치가 관심이 될 것이므로 유치기업의 정착 및 발전을 위해서는 기업 및 지역사회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좋은 인적자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사회에 진입하는 인력을 직접적으로 양성하는 고등교육기관의 경우 산업현장과 지역사회의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힘든 실정이며므로 수요지향적 인력공급체계를 구축하고 우수인력의 역외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지역사회와 연계된 노력이 필요하다.

충북이 교육여건 및 인재양성의 선진지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평생학습에 대한 지자체의 지원을 확대하고 도민들의 참여를 활성화하여 우리 지역을 생애주기 전 단계에 걸쳐 학습이 이루어지는 평생학습 공동체로 육성해야 한다.

세방화 (globalization)로 인해 세계는 국가가 아닌 지역 단위 경제체제로 돌입하고 있으므로 우리 지역을 세계의 중심지로 견인할 글로벌리더를 양성하는 것 또한 충북의 미래를 결정하는 관건이 될 것이다. 교육계도 실천을 위한 중부의 인재양성 정책은 유관기관들의 참여 및 역량부담을 기반으로 지역의 노동 시장과 연계하여 정규교육, 직업훈련, 평생학습과 상호 연동되는 시스템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3. 목표 및 추진전략

3.1 목표

창조적 지식기반사회에 대응하고 지역인적자원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주요 정책방안으로서 인재양성기반 및 역량강화, 맞춤형 인력 육성, 글로벌 인재양성 등과 같은 전략을 추진함으로써 '교육강도 (教育強道)'를 실행하겠다는 정책비전을 구상하였으며, '파워충북·브레인충북'을 비전 달성을 위한 케이지 프레임으로 설정하였다.
「교육강도(教育強度)」 실험이란 전략적 인적자원개발과 지역 평생학습공동체 구축을 기반으로, 단기적으로는 경제특별도 건설에 필요한 기업니즈 지향 인력을 육성하고, 장기적으로는 미래 충북과 우리나라의 물론 세계를 이끌어 갈 글로벌 리더를 양성하여, 인적자원의 경쟁력이 강한 지역으로 만들자는 것이다.

3.2 추진전략

교육강도 충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맞춤형 인력 육성, 글로벌 인재 양성, 인재양성기반 및 역량 강화 등 3가지 전략을 수립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맞춤형 인력 육성은 지역 전략산업 및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수요 맞춤형 인력을 육성하여 만한 4기 도내 기업들의 인력부족을 해결함으로써 경제특별도 건설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다.

글로벌 인재양성은 지역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지원과 외국어 및 다국적 문화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고 분야별 정책지도자를 양성함으로써 미래 충북과 우리나라를 물론 세계를 이끌어 갈 글로벌 리더를 양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인재양성기반 및 역량 강화는 제도적 기반 구축과 재정지원의 확대를 통하여 교육여건과 환경을 개선하고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도민들의 교육 참여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전국에서 교육환경이 가장 좋은 지역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3대 추진전략은 정책 수혜대상에 따라 또는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학교교육기반 및 역량 강화, 기업수요 맞춤형 인력양성, 평생학습기반 구축 및 활성화, 소외계층 교육복지 증진, 미래 정책지도자 양성의 5대 정책영역으로 구분되고 19대 중점과제를 통해 구체화 된다.

4. 영역별 추진과제

교육강도 실현을 위한 로드맵로서의 충북인재양성전략(안)은 학교교육기반 및 역량강화, 기업수요 맞춤형 인력양성, 평생학습기반 구축 및 활성화, 소외계층 교육복지 증진, 미래 정책지도자 양성 등 5대 정책영역을 통해 19대 중점과제와 89개 세부추진사업을 제시하고 있다.

4.1 학교교육 기반 및 역량강화

전국 최고수준의 교육여건과 환경을 조성하고, 수질성과 보편성에 기초를 둔 교육역량 강화를 통해 글로벌
리더와 맞춤형 인재양성을 기반을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 인프라 확충, 수월성 교육 강화, 글로벌 인재 양성기반 확충, 열린 체험교육기회 확대, 직업·진로교육 내실화 등 5대 증점과제를 설정하고 있으며, 이를 실천하기 위한 35개의 세부추진사업을 포함하고 있다.

〈그림 3〉학교교육기반 및 역량 강화 증점과제

교육인프라 구축의 증점과제에서는 충북인재양성재단 설립을 통한 1천억원 규모의 충북인재양성기금 조성, 글로벌 교육문화특구 조성 등 기본 인프라 확대에 관련된 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시설개선 등의 사업으로서 충북bio교육문화관 무대시설 설치, 장애아를 위한 에너베이터 설치, 학교 수유 겸 유아실 설치, 다목적실 확대 설치, 냉난방 시설 확대, 급식시설 여건 개선, 자연친화 적인 침산성 침판 설치 등의 사업이 담겨져 있다. 급식비 및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사업으로는 농산촌 지역 의무교육대상학생 급식비 지원, 한 세대 세대이상 자녀 교육비 지원, 유치원 종합학원 확대 운영점비 지원, 학교급식 우수 농축산물 식재료 지원 등이 있다. 교육문화를 바로잡고 교육 선도지역으로서의 위상을 되찾기 위해 교관신뢰 회복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범도민운동을 전개하자는 사업도 포함되어 있다. 기타 제도 개선과 관련하여서는 급식경비 지원 및 급수경비 지원을 위해 도내 전 시군으로 조례제정을 확대해 나가는 사업도 포함하고 있다.

수월성교육 강화의 증점과제에는 언어, 수리, 과학, 예술 등 여러 분야에서 특수한 재능을 가진 영재아를 조기 발굴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영재발굴 프로젝트 사업, 지역 인재육성을 위해 선도적 전략을 실행하고 있는 우수학교를 지원하는 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글로벌인재 양성기반 확충의 증점과제에서는 외국어 체험학습시설 확대 구축, 만기문 외국어 경시대회 확대 개최,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다국어 교실 운영 지원 등의 사업이 마련되어 있다.

열린체험교육기회 확대의 증점과제에서는 폐교를 활용한 지역사회문화센터 설치, 단위학교 간소화 시설 구축, 유비쿼터스 청소년과학교실 운영 등의 사업이 담겨져 있다.
마지막으로 전문계 고 특성화 유도를 위한 직업·전문교육 내실화의 중점과제에는 지자체·산업체 협력에 의한 특성화고 육성 지원, 산학협력 맞춤형 전문기술인력 양성, 지역별 직업전문교육지원센터 설치 등의 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4. 2 기업수요 맞춤형 인력 양성

전략적 역할 구분에 따라 산·학·연·관 연계에 의한 기업수요 맞춤형 인력육성과 글로벌 정책지도자 양성을 위해 대학의 교육은 물론 연구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 대학교육 및 연구 역량 강화, 지역산업 인력 양성, 산·학·연·관 네트워크 활성화, 청년층 취업지원 프로그램 등의 4대 중점과제를 통해 13개의 세부추진사업을 포함하고 있다.

〈그림 4〉 기업수요 맞춤형 인력 양성 중점과제

고등교육기관으로서 지역 거점대학들의 가능성을 역량대응과 연구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대학교육 및 연구 역량 강화 중점과제에서는 지역 거점대학별 교육 및 연구 특성화 유도, 지역산업발전 맞춤형 우수연구 지원, 인문·사회과학분야 연구 활성화 등의 세부추진과제들을 제시하고 있다.

지역 산업체에서 필요한 인력을 직접적으로 양성하여 배출하는 대학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지역산업 인력양성 중점과제에는 지역 전략산업 맞춤형 인재 양성, 중·소·사이언트 기술인력 양성, 바이오산업 전문인력 양성, 중소기업 맞춤형 경영관리 전문인력 양성, 지식기반 서비스산업 인력 양성 등의 세부추진과제들이 마련되어 있다.

기업수요 맞춤형 인력 양성은 산학연 네트워크의 구축과 운영을 통해 활성화 될 수 있는 바, 이를 위한 산학연 네트워크 활성화의 중점과제에서는 산학협력 현장교육 확대 지원, 산학협력 기술자회사 제도 지원, 학교기업 육성 및 활성화 사업 등의 세부추진과제들을 포함하고 있다.

대학에서 양성된 인력을 수요이자 기업에 적절히 배분하고 지역인재의 고용을 장려하여 청년층 취업을
해소하기 위한 중점과제인 청년층 취업지원 프로그램으로는 지역출신자 고용업체 인센티브 제공, 취업능력 강화 및 취업박람회 확대 개최 등을 추진하게 된다.

4.3 평생학습기반 구축 및 활성화

도민들의 생애 전 단계에 걸친 학습기를 확대 제공하고, 우리지역을 평생학습공동체로 구축하기 위한 정책영역으로서, 지역인적자원의 세계화 역량 강화, 평생 직업능력개발 활성화, 평생학습 문화·복지 향상 프로그램, 지자체 중심의 학습공동체 활성화 등의 4대 중점과제, 10개의 세부 추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5) 평생학습기반 구축 및 활성화 중점과제

도민들의 외국어 및 외국문화에 대한 학습 및 체험기회 확대를 통해 글로벌시대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역인적자원의 세계화 역량 강화 중점과제와 관련하여서는 중국어 마을과 연계한 국제문화·언어 학습센터 설립, 다국어·다문화 체험 프로그램 활성화, 민간단체, 공무원 등의 국제교류 활성화 등의 사업이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평생교육과 연계된 직무재교육 등을 통해 도민들의 직업능력개발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평생직업능력개발 활성화 중점과제에서는 서비스 분야 직무량상 프로그램 운영, 농민 전문성 강화 프로그램 운영, 조경·묘목 대학 운영 등의 사업들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5일제 근무제도의 확대로 여가문화에 대한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관련 분야의 인력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여가문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생활스포츠 및 여가활동 전문가 양성, 지역별 문화유산 개발 전문가 양성 등의 세부추진과제들을 마련하고 있다.

모든 계층의 도민이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어울려 없이 접근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통해 평생학습 수요자의 학습욕구를 충족시켜 줄으로써 우리 지역을 학습공동체로 구축해야 가기 위한 세부추진과제로는 광역자치단체 최초의 평생학습지원 조례 제정, 기초 지자체 평생학습센터 설립 지원, 가정 청년명절 평생학습축제 개최 등이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될 예정이다.
4.4 소외계층 교육복지 증진

계층간 교육차이 해소를 통해 지역발전 역량을 강화하고 정책각각지대에 있는 소외계층의 적정능력 강화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해 사회적 통합을 달성하고자 하는 소외계층 교육복지 증진 정책영역은 소외계층 자녀의 학습 및 정서 지원, 소외계층 적응능력개발 및 일자리 창출, 지역사회 연계 교육복지 인프라 구축 등 3대 중점과제와 15개의 세부추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6) 소외계층 교육복지 증진 중점과제

소외계층 자녀들의 학습기회 부족과 정시적 안전을 통해 교육복지를 확대로자 하는 의미에서 소외계층 자녀의 학습 및 정서 지원의 중점과제를 선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세부추진과제로서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확대, 대학생 멘토링 교사제도 확대 운영, 다문화가정 자녀 방문 한국어 교육 및 정서지원 사업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여성, 노인, 장애인, 결혼이민자 등 도내에는 다양한 소외계층이 존재하고 있으나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학습기회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소외계층의 적정능력을 개발하고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세부추진과제로는 결혼이민자 외국어 보조교사 및 문화교사 활용, 노인 윈스턴 취업지원센터 설립, 장애인 일자리 창출, 교육격차 경력단절여성 커리어 코칭사업 등을 계획하고 있다.

도내에서는 소외계층의 교육복지 및 능력개발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다양한 사업주체에 의해 시행되고 있으나, 상호 보완 교육목표의 부족 등으로 인한 사업의 중복 추진이나 자원대상 누락, 사업 우선순위 결정의 혼란 등 보이지 않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주체간 연계 네트워크 구축과 협력 프로그램의 추진을 유도하기 위한 중점과제로 지역사회 연계 교육복지 인프라 구축을 선정하였으며, 교육복지 시설 종사자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교육-고용-복지연계를 위한 복지서비스 네트워크 운영, 시군 자원봉사센터-소외계층자녀 연계 정서지원사업 등의 세부추진과제들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4.5 미래 정책지도자 양성

충청북도의 혁신과 발전을 주도하고 미래 대한민국과 세계를 이끌어 갈 미래 정책지도자를 전략적으로 양성하기 위해서, 글로벌 인재 양성 프로그램 운영, 충북 정책지도자 양성, 시장경제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의 3대 중점과제, 16개 세부 추진사업 내용을 담고 있다.

〈그림 7〉 미래 정책지도자 양성 중점과제

세방화(glocalization)의 급진전에 따라 지역의 이슈가 곧 세계적인 이슈로 연결되는 시대에 지역 인재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고 세계적인 인물을 배출하기 위한 전략적 중점과제로서 글로벌 인재양성 프로그램 선정하였으며, 이를 실천하기 위한 세부 추진과제로 선도적 미래지도자 양성 프로젝트 운영, 우수 대학(원)생 맞춤형 해외적해 지원, 국제학교 설립 및 충북학자 확대, 청소년 리더십 향상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의 사업을 포함하고 있다.

지역발전을 견인하고 우리 지역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지역으로 다져나가기 위해 선정된 충북 정책 지도자 양성의 중점과제에는 지역 균형발전 아카데미 운영, 여성 정책지도자 아카데미 운영, 정책실무담당자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의 세부 추진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경제특별도 충북의 조기 실행을 위해 도민들의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와 실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중점과제로서 시장경제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포함하였으며, 이를 실천하기 위한 세부 추진과제로는 충북 경제교육센터 설치, 경제지도자 양성 프로그램 운영, 도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열린 경제교육실 운영 등의 사업이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될 계획이다.
5. 추진력 제고방안

충북인재양성전략(안)의 5대 정책영역, 19대 중점과제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주요 교육주체간의 협력과 참여를 담보할 제도적인 장치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 즉 참여주체간 명확한 역할 분담과 합리적인 사업추진 절차를 통해 세부추진사업들이 단계적으로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즉, 충북인재양성전략(안)에서 제시된 사업들의 원활한 추진을 담보하기 위한 추진체제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현재 구성·운영되고 있는 충북교육발전협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더욱 활성화하여 지역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거버넌스 구축(안)을 아래 그림과 같이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8> 거버넌스 구축(안)
충북인재양성전략(안) 추진을 위한 커버넌스 구성방안은 다음과 같다. 충북교육발전협의회는 현재 조례가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충북인재양성전략의 실행계획(안)을 심의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실무조정위원회는 교육발전협의회 위원 소속기관의 실무책임자로 구성하며, 실행계획(안)의 실무적 검토 및 기관별 예산 반영 등의 기능을 담당한다. 사무국은 교육발전협의회 및 산하 분과위원회 등의 운영을 지원한다. 지원센터는 연구・조사 등 정책적 근거자료를 제공하고 추진사업들의 평가기준 및 평가체계 등을 개발하고 평가업무를 지원한다. 정책분과위원회는 기획・조정, 기초교육전략, 전문인력양성, 평생학습 및 교육복지, 글로벌 리더양성의 5개 분과로 구성하며, 정책개발, 사업 우선순위 결정, 실행계획(안) 수립, 공모사업에 대한 평가 등의 기능을 담당한다. 정책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인재양성, 배분, 활용 및 관리와 관련된 유관기관의 실무자와 각계 전문가로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사업의 선정단계에서부터 추진 및 평가 등에 있어서는 합리성, 효율성, 성과성의 기본원칙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합리성 원칙은 모든 정책의사결정이 실무결과 등 합리적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효율성 원칙은 정책영역별 사업 우선순위를 정하여 현안사업을 우선 추진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성과성의 원칙은 연도별 사업 추진성과에 대한 평가를 통해 향후 실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기본원칙을 준수하면서 합리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그림과 같은 절차에 따르면 될 것이다.

(그림 9) 사업추진 절차

분과위원회
・정책영역별 사업우선순위 결정
・실행계획(안) 작성 제출

실무조정위원회
・실행계획(안) 실무검토
・기관별 사업예산 반영

교육발전협의회
・실行계획(안) 심의

사업추진 및 평가에 따른 피드백

또한 사업의 완료한 추진을 위해서는 참여주체들의 역할이 명확히 정의되어야 할 것이다. 지자체는 지자체 주관사업의 추진 및 기타 유관기관들의 행・재정 지원, 커버넌스 구축, 인재양성전략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등의 역할을 담당하여야 할 것이다. 교육청은 학교교육기반 및 역량 강화와 관련된 사업을 주관하여 추진하고
소외계층 교육복지 증진 및 산학협력 연계사업 등에 협력기관으로 참여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여야 할 것이다. 대학의 경우에는 기업수요 맞춤형 인력 양성 등 대학 관련사업을 주관하여 추진하고 글로벌 리더 양성 사업 등에 연계하여 참여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기타 유관기관들은 인재양성전략 추진을 위한 거버넌스에 참여하고, 양성인력의 배출 및 활용의 증가자 역할을 담당하며, 사업주관기관의 협조 요청시 적극 협력을 하는 전문가 역할을 담당하여야 할 것이다.

5. 맺으며

경제특별도 충북은 2007년 9월 13일 현재 57개 기업, 12조 2,608억원의 투자유치 성과를 올려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으며 지역발전의 획기적인 전기를 맞고 있다. 이처럼 충북은 민선4기에 들어 단기간에 많은 기업을 유치하면서 경제특별도로서 손색이 없는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 이들 유치기업들의 조기 정착을 위한 지역내 정주가변의 확충과 필요한 인력의 조달이라는 과제를 또한 안고 있다. 그리고 세병화의 진전에 따라 충북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야 하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도내 유치기업들에게 필요한 인력을 적시에 공급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우수한 인재들을 양성하며, 이를 위한 인재양성 기반 및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정책적 의지를 담아 교육성도, 학교 실천을 위한 충북인재양성전략(안)을 수립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인재양성전략을 마련하였다는 것은 미라 충북의 인적자원 경쟁력 강화를 달성할 수는 없을 것이다. 우수한 인재의 양성은 자속성을 가지고 추진되어야 하는 중장기적인 성격의 정책이며, 인력의 양성, 활용을 담당하는 주체뿐만 아니라 모든 유관기관이 협력자와 총개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때 보다 가시적인 성과를 얻게 될 것이다. 또한 150만 도민들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참여와 관심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할 것이다. 인재양성전략은 지자체의 주도로 추진되는 정책이 아니라 모든 도민들의 관심과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하여 단계적이고 지속적인 정책으로 추진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흥보와 함께 지역사회의 협력을 유도하기 위한 노력도 개발을 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또한 도민들의 입장에서도 우리 지역의 교육여건 개선이나 역량강화의 문제를 지자체의 묵으로 남겨 두어 서는 안 될 것이며, 모든 도민들이 우리 아이들의 교육환경을 우리 스스로 개선하겠다는 마음으로 범 도민 운동에 적극 동참하여야 할 것이다.

지역인재양성을 기반으로 하는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자체의 확고한 정책적 의지와 도민들의 단합된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된다면 보다 가까운 미래에 충북이 양적 성장과 질적 성장을 동반하는 글로벌 중심지로서 우뚝 선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